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설 명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8. 12. 26. / (총 3매)	담당부서	보험정책과
과 장	정 경 실	전 화	044-202-3610
담 당 자	박 정 우		044-202-3601

“건강보험 보험료는 지난 10년간(’07~’16)의 인상 수준을 유지 중”

(‘12월 26일자 중앙일보 “4대 보험료도 과속, 5년간 30% 뛰었다”)

□ **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관련한 소요 자원(30.6조 원)은 보험료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(약 20조 원)도 병행 활용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보험료가 과거 인상 수준보다 더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.**

□ **기사 주요내용**

- 작년 국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대, 이는 복지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‘문재인케어’가 대표적
 - ‘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30.6조 원 늘려 병원비 부담에 쓰자는 것이 취지
 - 환자 1~3인용 상급병실 사용료, 틀니·임플란트 비용까지 보장해 과잉 복지논란 제기

□ **설명 내용**

- ‘문재인케어’가 ‘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30.6조 원 늘려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,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추진을 위한 소요 재정 충당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 -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자원(‘22년까지 누적 30.6조 원)은 보험료 수입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된 적립금(‘17년말 기준 약 20.8조 원)도 병행 활용할 계획이며,

- 건강보험 국고 지원 지속 확대, 지출 합리화를 통한 재정 절감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은 과거 10년간 인상율(07~16년 평균 3.2%)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.
- ※ 동 내용은 보장성확대 대책 발표시 이미 발표한 바 있음('17.8.9일자 보도자료 「모든 의학적 비급여, 건강보험이 보장한다!」 참고)
- * (참고)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님
 - 한국 6.24%(18), 독일 14.6%(15), 프랑스 13.64%(17), 일본 10.0%(13, 협회 기준)
- 환자 1~3인용 상급병실 사용료, 틀니·임플란트 비용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, 동 사항의 보장성확대 추진 취지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-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(17.8.9 발표)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,
 - * 건강보험 보장률 : 62.6%(OECD 평균 80% 수준, '16), 법정 본인부담률 : 20.2%, 비급여 부담률 : 17.2%('16)
- 상급병실 입원료 등 실제 의료비 부담이 높거나,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적용 요구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'18.7월부터 급여화된 종합병원 이상 2~3인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 병실이 부족하여 원치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
- 틀니·임플란트 부담 경감도 구강 건강이 취약*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해 평생 2개까지만 한정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
 - * 노인 중 20개이상 치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6.6%에 불과, 이 중 23.3%는 의치가 필요한 상태('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)

- 한편,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0.4%(’16, 잠정치)로 OECD 국가 평균(21.0%)에 비해 아직 낮은 상황이며,
 - 조세를 포함한 전체 국민부담률*은 ’16년 26.2%로 OECD 평균 34.0%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.
 - * 국민부담률 = (총조세 + 사회보장기여금) / 명목GDP
 -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,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,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저소득층·복지사각지대 등 우선 순위가 높은 취약한 곳부터 복지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